

# “1인 변전소장의 안타까운 사고”

김방규 | 전선도전기(주)사장

지금은 도심이 되고 수도권이 되어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송파나 경안(경기도 광주) 등이 예전에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시골이었다. 이곳의 변전소는 몇십길로 변압기 몇 대가 전부이고 O.S로 선로를(3,300V) 개폐하였다.

여기의 한전 근무자는 검침, 수금, 약식 수리까지 하는 1인 출장소로 소장과 그 부인이 전부였다. 수요량에 관계없이 관할이 넓어 검침에서 수금, 수리까지 하기엔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검침은 방앗간 등과 같이 동력을 쓰는 집과 간혹 있는 가내 공장과 식당 등에 한정하고 농가는 무조건 기본요금으로 추산하는데 실제로도 썼다. 물론 TV도 없을 때라 대부분 저녁만 먹으면 불을 켜다.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니 경우는 이렇다.

어느 가내공장에서 연락이 왔다. 전주의 애자가 터졌다는 것이다. 선로의 O.S를 끊고 현장으로 갔다. 그다음 소장이 없는 변전소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 자동으로 그 부인의 몫이었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전기가 안나갔다는 것이다” 라디오가 켜져 있다고 물어봤다. 전화 수화기에서 도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이 부인은 순간 당황했다. 지금 자기 남편은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중인데 전기가 안나갔다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 부인은 O.S 전주로 달려가 무조건 밧줄을 잡아 당겼다. 꺼져 있는 스위치를 투입해 버린 것이다. 순간 작업하던 남편은 3,300V에 감전되어 추락했다. 대부분 라디오가 진공관식으로 A.C를 썼으나 터러는 라디오보다 더 큰 균용 배터리를 개조품으로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고 그 부인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일으킨 사고였던 것이다.